

홀튼 방출... KIA, 4강 승부수 던졌다

잇단 부상에 성적 부진 KBO에 웨이버 공시 신청 선감독 “좌완 외국인 투수 영입 송은범·김진우가 후반기 열쇠”



‘호랑이 군단’이 외국인 카드 교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외국인 투수 테니스 홀튼의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 이는 계약 해지로 방출을 의미한다. 일본 다승왕 출신의 홀튼은 시즌 초반 갑작스레 제구와 경험으로 에이스 양현종과 마운드 양 축을 형성했지만 최근 무릎이 좋지 않으면서 제구와 구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웨이버 공시 마감 날짜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LG와의 홈경기에서도 최경철에게 만루포를 얻어맞는 6피안타(1홈런) 3볼넷 5탈삼진 4실점의 부진 속에 4회 조기 강판, 팀과의 결별이 예고됐다. 홀튼은 24일 KIA에서의 생활을 정리했다.

선동열 감독은 “바꾸는 게 답은 아니다. 몸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가겠지만 팔꿈치 인대 손상이 있고 무릎 연골 쪽이 좋지 않다. 로테이션을 조절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KIA에게 남은 경기는 44. 아직 4강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감하게 선발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새 투수가 연착륙을 한다고 해도 마운드 운영에는 고민이 남았다. 송은범과 김진우가 마운드의 변수이자 카드.

선 감독은 “후반기 성적은 김진우와 송은범에게 달려있다. 두 선수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양현종 말고는 길게 이닝을 소화해주는 선수가 없다. 두 선수가 잘 해주어야 팀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며 “새 외국인 투수는 한 톨 정도 지난 뒤 가용하게 될 예정이다”고 얘기했다.

특히 김진우는 KIA 마운드의 가장 큰 고민이다. 잇단 부진 속에 선발진에서 불펜으로 물러난 김진우는 23일 등판에서도 0.2닝 동안 2개의 피홈런으로 5점을 내주는 등 8-11 팀 패배를 자초했다.

선 감독은 “제구가 되지 않고 힘으로만 승부를 하니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KIA는 일단 홀튼의 반자리에 서재응을 불러올렸다. 서재응은 올 시즌 불펜으로 9경기에 나와 8.7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데 그치며 5월7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한편 KIA는 조만간 좌완 외국인 선수를 영입, 선발자리를 맡길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홈 2연승 간다

27일 부천과 경기...파비오 등 베스트 전력

광주가 물오른 플레이로 홈 2연승을 노린다. 광주 FC가 2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첼린지 리그 20라운드 부천과의 홈경기를 치른다. 앞선 수원과의 경기에서 홈 2-0으로 승리를 거둔 광주의 2연승 도전이자 본격적인 순위싸움의 장이다.

광주는 6승6무7패(승점 24)로 6위에 올라있지만 2위 안양과의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하다. 플레이오프 마지막 선인 4위 고양과는 2점 차다.

광주가 자신의 색을 찾으면서 무서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앞선 수원전 승리 후 우리만의 색깔을 찾은 것 같다”며 결과는 물론 내용에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선수들의 패싱력이 살아나면서 플레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또 파비오가 부상을 털고 외국인 선수의 역할을 해주는 등 공격수들이 득점 감각을 찾으면서 시원한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상승세의 광주는 베스트 전력으로 부천전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됐던 임선영의 컨디션이 이상 없고, 징계로 빠지는 선수가 없는 만큼 100% 전력을 꾸릴 수 있다.

올 시즌 FA컵 포함 부천과의 상대전적에서 광주가 2승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첫 맞대결이었던 3월30일 홈경기에서 2-0승을 기록했고, 지난 4월 FA컵 32강 홈경기에서도 1-0 승을 장식하며 홈에서 2승을 거뒀다. 홈 2연승이자 부천을 상대로 한 홈 3연승 도전이기도 하다.

광주의 필승 전략은 물러서지 않는 축구.

남 감독대행은 “상대를 꼭 제압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물러서지 않는 축구를 하려고 한다. 선수들의 자신감도 생겼고 광주 스타일대로 수비라인을 최대한 올려서 상대를 압박하고 볼을 소유를 많이 해서 경기를 풀어가겠다. 수비에서부터 풀어나가는 부분도 좋아졌고, 한쪽에서 잘 풀리지 않을 때 빠르게 변화를 주는 등 전환플레이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찬스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의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김호남·이종민·제종현

K리그 19라운드 ‘베스트 11’



김호남 이종민 제종현

광주 FC의 김호남·이종민·제종현이 베스트 11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 챌린지 19라운드 베스트 11에 수원전 승리의 주역인 김호남·이종민·제종현이 이름을 올렸다.

공격수 김호남은 “적극적인 슈팅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환상적인 개인 능력으로 썩어붙이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베스트 11이 됐다. 김호남은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45분 득점에 성공하며 팀의 2-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수비수 이종민은 “활발한 오버래핑으로 측면 공격을 지원했다. 안정적인 수비까지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종민은 앞선 16·17라운드에서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골키퍼 제종현도 무실점 방어를 선보이며 베스트 11에 영광을 차지했다. 제종현은 “정확한 톱 킥으로 역습을 지원했고, 안정적인 방어 능력으로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특특특

▲“첫 타석에 들고 나갈게요.”

선동열 감독이 방망이 두 자루를 들고 등장했다. 김주형을 주기 위해 마련해 놓은 방망이라는 게 선 감독의 설명. 선 감독은 “주형이가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다른 선수를 뭐야겠다”며 그라운드를 응시했다. 감독이 들고 나온 방망이는 34인치. KIA에서는 김주형과 나지완·필이 사용하고 있다. 마침 덕아웃에 들어오던 나지완이 “가벼워요”라면서 김치국부터 마셨다. “이게 가볍나?”며 방망이를 휘둘러 보던 선동열 감독. 이를 본 나지완이 “한번 들어는 보겠습니다”며 선 감독에게 다가갔다. 방망이를 휘둘러 저어본 나지완. “이건 괜찮다고 잘 쓰겠습니다”하며 뱃듯이 선 감독에게 방망이를 가지고 돌아섰고 덕아웃에 웃음이 터졌다. “경기 때 안 쓰려면 가져

필, 한국 여름 적응기...“8월도 됩나요?”

가지 말라”는 선 감독의 말에 나지완은 “첫 타석에 들고 나갈게요”라며 유유히 라커룸으로 향했다. 선 감독은 남은 한 자루는 필에게 ‘선물’이라며 건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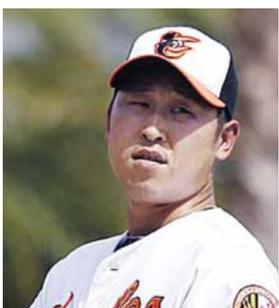
▲“8월에도 됩나요?”

폭풍 씨는 날씨가 계속된 24일. 선수단 훈련이 끝나고 들어오던 김상훈이 “애들 보다 내 가 더 땀을 흘린다”며 껄껄 웃었다. 얼마 전 은퇴를 선언한 김상훈은 홈경기 때 선수단과 동행, 코칭스태프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상훈은 “선수들 보다 훈련도 더 빨리 시작한다”며 땀을 흘리며 사라졌다. 외국인 선수 필에게도 견디기 힘든 찜통 더위. 날씨가 답답하고 허

를 내두르던 필이 취재진에게 “8월에도 이렇게 됩나?”고 물었다. “그렇다”는 얘기에 필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3~4점 안에서만.”

홀튼을 교체하면서 새 외국인 투수를 맞게 된 KIA. 선동열 감독이 홀튼을 교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아쉬운 마음을 보였다. 새로 올 선수에 대한 바람도 언급했다. 선 감독은 “로테이션이 중요하다. 6회까지만 던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 감독은 이어 “3~4점 안에서만”이라고 단서를 붙여 사람들을 웃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석민, 다시 부상자 명단에 “몸에 이상이 없어”...검진후 다시 등판

윤석민(볼티모어)이 부상론에 괴롭다.

볼티모어 산하 트리플 A팀인 노포크 타이즈에서 뛰고 있는 윤석민이 24일(한국시간) 부상자 명단(DL)에 올랐다. 지난 21일 로체스터와의 경기에서 부상복귀전을 지켰던 윤석민의 두 번째 DL행이다.

갑작스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게 되면서 우려를 사고 있지만 윤석민은 이에 대해 “어깨·팔꿈치 모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민은 “지난 등판에서 오랜 만에 던져서 그런지 손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 있었다. 구단에서 배려를 해주면서 검사를 받게 됐다. 25일 손가락 신경 등에 대한 검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어깨와 팔꿈치 모두 100%. 걱정을 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면 다시 엔트리에 등록돼 공을 던질 예정이다. 당초 등판 예정일은 26일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